

강경화 외교부 장관 특강 진행



▲강경화 장관이 작년 연세대학교, 올해 4월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5월 우리대학에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성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 장관은 강연 중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강경화 장관이 '평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에 대해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한 총장과 최철근 학생처장, 황혜성(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등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강 장관은 1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화의 의미와 평화 및 외교 정책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튀니지·시리아·콜롬비아 등 타국을 사례로 들어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시민 사회의 저력과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다양한 외교 정책을 소개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학생대표 3인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남북 평화공존 체제 ▲예멘 난민 문제 ▲남북 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중 통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평화적 공존이 보장된 후에 통일을 논해야 한다"며 "향후 한반도가 통일될 시,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즉석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미 비핵화 프로세스 ▲미·중·일·러 4강 외교와 다자 외교의 방향 등 외교 이슈에 관한 대화가 이뤄졌다.

이날 학생대표로 특강에 참석한 김정훈(스마트3) 학생은 "평소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던 외교 이슈를 장관님께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면 한국문화 홍보, 해외 봉사활동 참여 등 민간부문의 외교활동에 나서 평화를 보존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학술정보관, '저자와의 만남' 특강 성료

지난 5월 9일, 미래관 DLC에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저자 김수현과의 만남 특강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베스트셀러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저자인 김수현 작가와 함께하는 ▲강연 ▲퀴즈 및 저서 증정 ▲저자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교과 포인트 10pt와, 학술정보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서 마일리지 20점이 부여된다.

이번 특강은 '학술정보관과 함께하는 나나랜드-독서를 통해 나를 알고 나답게 살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연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본 행사에 초청된 김수현 작가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외에도 『100% 스무 살』, 『안녕, 스무 살』 등의 에세이를 출판한 바 있는 유명 작가다.

한편, 강연에 앞서 학술정보관은 강연 참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강 주제도서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한 학생 선착순 20명에게 해당 도서를 증정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순애 학술정보관장은 "최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에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연을 통해 일깨워주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자와의 만남 외에도 학술정보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동정란

홍승린(사회과학부) 교수
홍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회 위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에브리타임 학교 소식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상상파크’ 간담회, 점찍기는 아직 일러

기존 연구관 전시실을 협의 없이 폐쇄하고 ‘상상파크’ 시설 설립을 강행한다는 회화과의 주장에 대학 본부가 해명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4월 19일 열린 회화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및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상파크 조성 취지와 비대위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여기서 상상파크란 연구관 전시실 자리에 세워질 VR/AR센터(가상현실 체험장)와 메이커 스페이스(3D 프린터 등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를 통칭하는 말이다.

대학본부와 비대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아
간담회에서 이동준(시설지원팀) 팀장은 상상파크 조성 경위를 밝혔다. 그는 “상상파크 조성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돼 4개월 간 논의가 진행됐던 끝에 3월 19일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작년 11월 VR/AR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 교수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구관 전시실에 상상파크를 건립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올해 1월 31일 우리 법인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됐고, 이후 2월 21일 학사협의회에서 상상파크 조성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3월 19일 시설공간위원회에서 상상파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천근 학생처장은 “우리학교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받은 후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의논하면서 VR/AR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를 짓자는 의견이 나와 상상파크 조성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비대위가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윤(서양화 4) 비대위원장은 “동양화과에서는 전시실 폐쇄로 학생 13명이 졸업전시를 위해 외부 전시실 대관료 600만원을 분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학교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대관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상상관 1층 로비를 전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상관 로비는 전시실로 쓰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지선관 복도 및 계단과 실습실을 전시실로 쓸 수 있게끔 개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대중 총무처장은 “비대위가 요구한 첫 번째 안은 학교 예산이 다른 과에 고루 운용돼야 하므로 비대위 의견만 듣고 대관료를 지원하기는 힘들다. 두 번째 안의 경우, 지선관 복도는 건물 구조를 파악한 후 개조해줄 수 있지만, 일부 실습실을 개조하면 향후 시각 디자인과 같은 다른 트랙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의 편익을 위해 상상관 로비와 지선관의 개조를 주장했다. 정호재(무용 4) 총

학생회장은 간담회에서 “인테리어 과 등 다른 트랙도 전시실 폐쇄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상상관 로비를 전시실로 쓸 수 있게끔 개조하면서 회화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형평성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 처장은 “먼저 지선관과 상상관의 구조를 회화과의 요구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지선관 대신 상상관, 갈등 봉합되나
간담회 이후 비대위는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대학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회화과 교수 회의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따라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학과 명의로 대학본부에 송달할 계획”이라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4월 19일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변대중 총무처장

이에 대해 정현이(예술학부) 교수는 “비대위 측이 제시한 상상관 개조안과 지선관 개조안 중 상상관 개조안에 교수들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인현 학과장이 상상관 도면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그려 대학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추후에 대학본부와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총학생회장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대학본부 측과 논의한 것이 없다. 먼저 대학본부에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2018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성과평가’ S등급 선정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8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최우수대학(S등급)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지난 2년간 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으로 우수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됐다.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 현장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로 구분된다. 장기현장실습은 본교 3·4학년 재학생이 산업체 현장에서 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4학년 재학생도 실습생으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으면, 졸업 후 일반근로자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성과평가는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가 각각 50% 비중으로 반영됐다. 두 부문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전담인력 고용유지율 ▲장기현장실습생 취업률 ▲실습기업 발굴 및 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손병호(IPP 사업단) 부장은 “우리학교는 사업 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의 전 과정에서 타 대학교와 차별화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본교 총동문회 ‘성북동 역사길 트레킹’ 행사 개최



지난 4월 13일, 본교 제23대 총동문회가 ‘성북동 역사길 트레킹’을 진행했다. 이는 제23대 총동문회가 주최한 첫 행사로, 동문들과 우리학교 인근 성북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재학 시절의 정취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권혁운(경영 83) 총동문회장과 안국영(경제 81) 전 총동문회장, 김태연(무용 81), 김관덕

(영문 92)을 포함해 동문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집결 ▲점수 ▲단체사 진 촬영 ▲성북동 역사길 트레킹 ▲점심식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길상사에서의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성북동 역사길 트레킹’은 집결

장소인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분수광장에서 출발해, ▲옛 서울시장 공관 ▲와룡공원 ▲북정마을 ▲심우장 ▲길상사 ▲최순우 옛집을 따라 걷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날 권 회장은 “동문들과 함께 성북동을 걷다보니 골목들이 더욱 정겹게 느껴졌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총동문회는 오는 9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동문 체육대회’에 재학생을 초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앞으로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종종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 자리를 기회로 동문과 재학생이 하나 되어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다빈 기자
kdb1478@daum.net

#한성 #타임라인

학술정보관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B그룹 1위

우리대학 학술정보관이 교육부가 주관한 ‘2018 대학도서관 시범평가(이하 시범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시범평가는 총 38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우리대학은 재학생 5천 명 이상 1만 명 이하의 대학이 소속된 B그룹에 소속됐으며, 수도권 내 4년제 16개 대학 중 1위, 전체 4년제 58개 대학 중 3위를 달성했다.

시범평가는 ▲도서관 발전 기반 및 사서 역량 강화 ▲도서관 운영 ▲도서관 경영의 단기적 성과 ▲도서관 경영의 장기적 성과 내 세부 지표 40개 등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치러졌다. 이번 시범평가에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영역을 점검한 만큼, 학술정보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낮은 평가를 받은 업무를 확인해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으로 독서문화 촉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학술정보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99명이었던 독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2018년 1,075명으로 늘어나 참여율이 359%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획득하기도 했다.

김현미(학술정보관) 팀장은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1위가 되기가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컨설팅트랙 외부인사 초청 특강 열어

지난 3월 26일과 4월 23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컨설팅트랙 외부인사 초청 특강’이 개최됐다. 본 특강은 스마트경영공학부의 ‘컨설팅트랙’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 특강은 각각 1회차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회차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월에 진행된 1회차 특강은 ‘비즈니스 컨설턴트 업무 및 마인드’를 주제로 이수창(딜로이트) 부장과 함께했다. 현장에서 그는 ▲컨설팅의 이해 ▲과정 ▲요건과 수칙 ▲기술적 요소 ▲방법론의 이해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4월에 진행된 2회차 특강은 신재규(LG CNS 엔트루 컨설팅) 총괄 컨설턴트가 ‘컨설팅 방법론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끌었다. 특히 “이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알고 공감을 통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박소진(사회과학 1) 학생은 “컨설팅트랙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강연을 통해 컨설팅의 의미와 사례를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곽다빈 기자 kdb1478@daum.net

중국&일본 단기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제교류협력팀에서 ‘중국&일본 단기연수 프로그램-2019년 한성 글로벌 썸머캠프(이하 단기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단기연수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열린 사고 및 국제 경쟁력을 촉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모집 대상은 학칙에 의한 징계 이력이 없는 본교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재학생이다. 단, 학점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본교에서 중국 혹은 일본 관련 특강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공인어학성적을 소지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중국의 상해해양대학교와 일본의 홋카이도교육대학에 각각 파견되며, ▲비교과 포인트 50pt 지급 ▲프로그램 수료자 본교 학점(1학점)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민이(국제교류협력팀) 팀원은 “학생들이 단기연수에 참여해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현지의 소중한 경험과 자신만의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정영아 기자 mhbt0330@naver.com

위기의 '총학생회',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최근 대학가에는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꾸리지 않은 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5개교 중 8개교(22.86%)는 2019년 1학기를 총학 없이 맞이했다. 그중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후보자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아 '2019학년도 총학 보궐 선거'가 무산됐으며 연세대학교는 지난해까지 투표율이 미달해 '3년 연속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같이 출마자가 없어 총학이 무산되거나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의 중심에는 '총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있었다.

학내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80-90년대 민주화 성취 이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IMF 사태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현격히 증가해 현재 정점에 이르렀다. 김성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를 "여기에는 사회적 수준의 정치적 무관심이 반영됐다. 또 2000년대에 확산된 신자유주의가 정치 및 공동체의 중요성보다 개인주의 및 경제적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내 정치 상황이 취업·거주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거둔 것이다.

류석진(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0-1990년대에 시대가 당면한 민주화라는 공통 과제가 해결된 후, 총학은 학내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러나 학내 문제에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즉, 이전까지는 학외의 '민주화' 공통의제가 학생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뿐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가에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기존의 자주통일·노동인권 등을 중시하던 '운동권' 총학과 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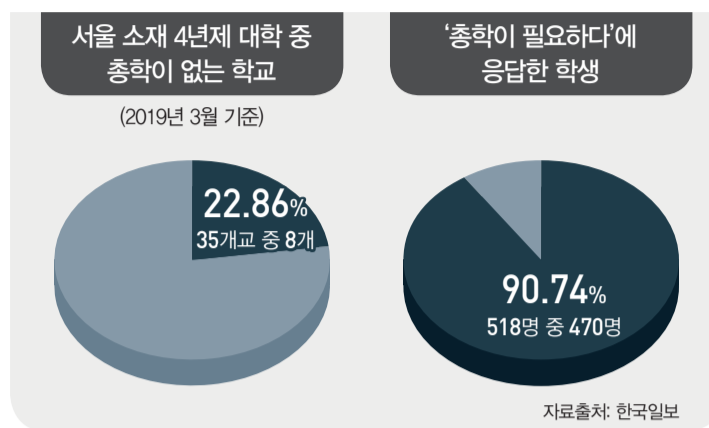
두는 소위 '비운동권'이라 불리는 총학이 대거 등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대학연구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는 대학 내외의 운동과 관련한 이슈의 범위가 그 전보다 넓어진 것"이라며 "퀴어 운동, 페미니즘 사회 운동 등의 인권 활동은 단순히 운동권이 퇴조하고 비운동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학생들의 '니즈(needs)'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인 총학과 비대위가 운영비를 횡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의외면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양대 전임 비대위 원장은 약 500만 원을, 건국대학교 총학의 전직 간부는 약 1500만 원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학을 '부패와 인권으로 점철된 자리'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총학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총학생회'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집단이며, 굳이 대학사회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총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일보>가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대학생 5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70명(90.74%)의 학생이 '총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의 권리를 대변할 대표기구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기구'에 대한 수요와 '총학생회의 몰락'이라는 대학가의 모순은 왜 발생했을까?

이에 대해 이재목(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학생 사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현 총학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관심은 낮은 등록금, 좋은 복지, 좋은 취업 등과 같은 재정문제"라며 "이는 현 총학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교수는 "총학은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학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종의 '무임승차'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사회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내 사안에 참여하지 않으니 총학에게 힘이 실리지 않고, 총학이 힘이 없으니 학생들은 학내 사안에 더 관심을 갖지 않는 형세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총학이란 무엇일까?

김 교수는 "학생들은 그들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총학, 어느 정도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자신들의 대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교수는 "무임승차를 막고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높여 활동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 총학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혜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의 니즈는 학내의 복지, 소통과 같은 가까운 문제부터 시작해 적립금, 총장직선제, 협의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제들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학생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고작 1년 남짓한 총학의 임기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시 학생이라는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수요는 현 총학생회의 역량으로는 단기간에 풀 수 없다"며 "총학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감당이나 공청회를 늘리는 등 학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학생회 조직의 역량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첫 단계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낙태죄를 해방시킨 현재 '낙태 필요 없는 사회' 여나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신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의 동의를 얻어 시술한 의사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부가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에 한해 낙태를 용인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소득 불안정과 같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하는 경우까지 처벌한다는 점과,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시술한 의사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이에 4월 15일 이정미(정의당) 대표 등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차 이내 임신부는 본인 의사만 있으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임신 22주차 이내 임신부는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를 충족할 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단, 사회·경제적

사유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수년간 낙태죄를 폐지시키고자 했던 여성들의 투쟁이 일궈낸 여성운동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반면, 낙태반대운동연합이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태아 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신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의 동의를 얻어 시술한 의사가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쟁의 핵심은 낙태 허용 여부가 아닌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향해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을 권고하지 않은 면에서 이번 결정은 아쉽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한 교수는 "임신 14주차 이내 임신부에게 어떠한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하게 한 것은 그가 낙태를 결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고민하는 기간이 12주에서 14주 정도라고 판단해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점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신장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윤희승 기자
yoohing@gmail.com

활개치는 SNS 속 '대리입금'...2년 사이 3.5배 증가

'낮은 신용등급'과 '금융교육 부재'가 원인

최근 대학생들 상대로 한 SNS 불법 소액 대출이 크게 증가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SNS 불법 소액 대출사기 피해 건수가 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SNS를 활용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출은 '고금리 불법 대출'의 형태를 띤다. 이른바,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이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게는 1,000원, 많게는 50만 원

안팎의 현금을 2~3일간 빌려준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금과 함께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더해 받는 형태다. 대리입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하루에 30%가 넘는 높은 이자와 단기간 내 상환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연체 시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최유리(대구청년단체) 상임이사는 "대리입금 이자 대부분이 법정 최고 연이자율인 24%를 넘는다"면서 "이러한 대리입금이 젊은 층 사이에서 성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리입금의 규모가 커져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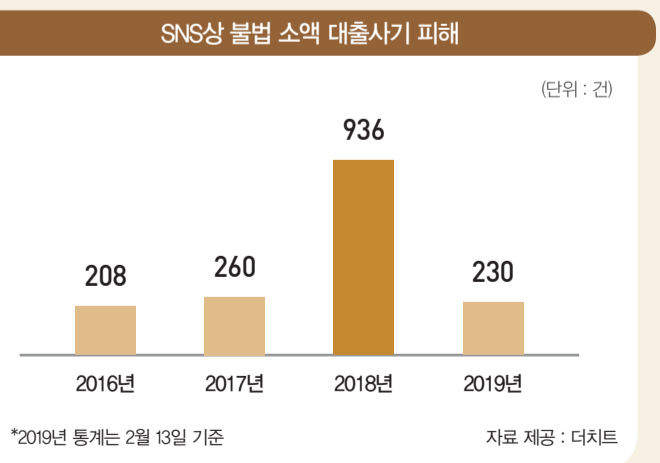
따라, 개인 간의 대출뿐만 아니라 불법 알선을 통한 대리입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대리입금에 빠지는 이유를 '낮은 신용등급'과 '금융교육의 부재'로 꼽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의 평균 신용등급이 4~5등급인데, 이 신용등급으로는 연이자율 9% 수준의 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때문에 훨씬 높은 이자율을 가진 대리입금의 손을 빌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낮은 신용도와 불안정한 일자리가 청년들의 합법 대출을 막는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교육의 부재 역시 청년들이

대리입금에 현혹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정식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 대리입금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리입금과 같은 형태의 대출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대부업 행위를 할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과도한 이자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된다"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권추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한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눈빛만 바꾸면 눈길도 달라진다! 콘택트렌즈의 무한 변신

화장의 생명은 자고로 눈이라고 했던가. 형형색색으로 치장한 얼굴에서 눈은 단연 돋보이는 부위 중 하나다. 필자 역시 화장을 할 때는 눈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곤 한다. 2~3가지의 아이섀도를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린 후, 뷰러에 마스크라까지... 눈 화장 순서를 그대로 옮기만 해도 벌써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눈 화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생생한 눈빛을 연출하기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야 비로소 눈 화장이 진정으로 완성된다. 콘택트렌즈는 수십 가지의 디자인을 통해 때로는 영롱한 눈빛을 내비치고, 때로는 그윽한 눈빛을 연출한다. 또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만화의 주인공으로 변신하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이 되기도 한다. 아직도 '렌즈가 다 거기서 거기지'란 생각에 빠진 당신이라면 이 기사에 주목하자.

빛에 따라서 주황빛으로도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가 알던 내 눈이 아냐

기본적인 컬러 렌즈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보다 특별한 렌즈를 알아볼 차례다. 바로 14.5mm를 넘는 직경으로 눈동자는 물론 안구 전체를 덮는 '공막 렌즈'다. '코스프레 렌즈'로도 불리는 공막 렌즈는 일반적인 컬러 렌즈에 비해 또렷한 눈의 모양과 색상을 나타낸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화려한 눈 색깔을 표현하는 데 적합해, 제품의 이름부터 캐릭터의 팬층을 겨냥해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공막 렌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코스프레나 할로윈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주의할 점은 다른 렌즈보다 직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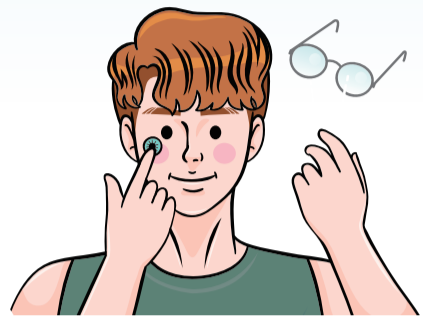
영화 <컨저링2> 속 수녀귀신을 연출한 이해연 씨는 흰색 바탕 위에 검정색 선과 빨간색 점이 그려진 공막 렌즈를 착용해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칫 어설피 보일 수 있는 캐릭터 분장이 독특한 렌즈로 한층 생동감 있게 돋보이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최 마케터는 "그래픽 직경이 큰 렌즈는 일반 컬러 렌즈보다 판매량은 낮지만, 마니아층이 있어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해외에서는 선호도가 국내보다 높아 판매량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대세'와 '대세'의 만남

아예 주소비층인 10·20대를 겨냥해 출시된 렌즈도 있다. 일명 아이돌 렌즈, 연예인 렌즈로 불리는 렌즈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및 아이돌 가수, 배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색뿐만 아니라 그림과 문구를 추가한 아이돌 렌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남자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이 콜라보한 '세븐틴 렌즈'는 그룹명과 로고가 프린트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예인 렌즈는 동경하는 대상의 눈을 그대로 재현하는 만큼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착용한 렌즈를 통해 콘택트렌즈에 입문한 황민정(22) 씨는 최근에도 세븐틴 렌즈를 구매했다. 그는 "평소 세븐틴의 팬이다. 렌즈를 구입하면 세븐틴 팬사인회에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해 구매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색깔과 로고, 패턴의 조화가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도 렌즈에서 찾을 수 있다. '캐릭터 렌즈'는 바탕색 위에 캐릭터 그림을 프린트해 눈을 가까이 들여다 보면 숨겨진 캐릭터를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귀여운 디자인으로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또렷한 눈빛을 표현해주는 콘택트렌즈. 그러나 렌즈는 눈과 바로 맞닿는 물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루 권장 착용시간을 준수하고, 사용 기한이 지난 렌즈는 바로 버려야 한다. 화려하게 빛나는 눈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눈은 '건강한 눈'이란 점을 잊지 말자.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는 법!

렌즈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시작은 컬러 렌즈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컬러 렌즈는 일반적인 눈동자의 직경인 11~14mm 직경이 대부분으로, 착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착용 시에는 눈의 모양(크기)과 눈동자의 색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찾아 직접 색상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 내가 좋아하는 색의 렌즈가 없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컬러 렌즈에는 원색 계열의 렌즈도 있지만, 2가지 색이 배합된 2색 렌즈부터 최대 5색까지 그 수의 배합이 무척 다양하다. 여러 가지 색상이 섞인 렌즈는 보다

독특하고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컬러 렌즈가 가진 색깔에 빠져 렌즈를 끼기 시작했다는 유혜림(23) 씨는 매일 화장에 따라 어울리는 색의 렌즈를 선택하고 있다. 그는 "한 가지 색만 담긴 렌즈보다는 다양한 색이 담긴 렌즈를 선호한다"며 "최근에는 분홍, 보라, 회색이 섞여 반짝이는 우주를 나타내는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소미(렌즈타운) 마케터는 "유행에 민감한 렌즈의 특성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특별한 색을 가진 렌즈를 제작하고 내세우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2가지 이상의 색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갈색 계열의 렌즈지만,

내게 꼭 맞는 렌즈 찾기

이름 컬러 렌즈
특징 눈동자 크기와 가장 비슷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원색 계열은 물론 최대 5색까지 표현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유의점 어울리는 색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눈동자 색에 따라 직접 색상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추천 대상 입문자

사진 제공: @hnni_bt, @u_th

▲3색이 배합된 컬러 렌즈(좌), 할로윈 콘셉트에 맞춘 코스프레 렌즈의 착용 모습(우)

이름 공막 렌즈(코스프레 렌즈)
특징 일반 컬러 렌즈보다 또렷한 눈의 모양과 색상을 나타낸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화려한 눈 색깔 표현에 적합하다.
유의점 착용 시, 직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추천 대상 중~고수, 코스프레 플레이어

사진 제공: @hr914

이름 콜라보 렌즈
특징 주소비층인 10·20대를 겨냥해 출시. 뷰티 크리에이터 및 아이돌 가수 등 동경하는 연예인의 눈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색뿐만 아니라 그림과 문구가 추가돼 숨겨진 로고와 캐릭터를 찾을 수 있다.
추천 대상 해당 연예인과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진 제공: 렌즈타운

사진 제공: @min_gean

▲일명 '세븐틴 렌즈'의 실제 착용 모습. 세븐틴의 그룹명과 로고가 영롱하게 빛난다.

멀고도 가까운 전시 속으로

심전 안중식, 근대 서화의 '한 획'을 그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35년간 일제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수모의 시기다. 동시에 항만을 통해 활발히 유입되는 근대 문물 속에서, 우리의 서화(書畵)가

큰 활기를 띠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근대 서화' 발전의 시작에는 심전(心田) 안중식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세상을 떠났던 그가 서화 작품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백악춘효> 여름본(좌) · 가을본(우)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심전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 열린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4,000원이다. 이번 전시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전의 대표작을 특별 공개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한쪽 벽을 차지한 큰 병풍을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화조도>다. <화조도>를 살펴보면 병풍의 장마다 각 계절에 대한 시 구절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매화화와 대나무 등 계절을 유추할 수 있는 꽃과 나무도 확인할 수 있다. <화조도>는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 담담한 심전의 화풍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또한 이 작품은 심전이 중국에 사절로 파견됐을 때 배었던 중국 화풍의 영향이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다.

심전의 서화는 191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의 작품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백악춘효>와 <영광풍경>이 이 시기에 탄생했기 때문이다. <백악춘효>는 안중식이 일제에 의해 훼손된 경복궁을 기억에 의존해 그린 작품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익(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는 "1915년 일제는 병합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는 목적으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경복궁이 훼손됐다"면서 작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시는 1915년 그려진 <백악춘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백악춘효>는 '백악의 봄날 새벽'을 의미하는데, 이는 잃어버린 봄 혹은 다가올

근대의 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백악춘효>와 더불어 안중식의 기념비적 작품이라 평가받는 <영광풍경>은 전라남도 영광의 마을을 담은 작품으로, 실제 마을 풍경을 현장감 있게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안중식은 사실적 표현을 위해 초가집과 기와집을 서양의 원근법에 기초해 그려냈다. 또, 서양식 화풍을 곁들여 후세들에게 큰 영감을 줬고, 이는 근대 서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김 학예연구사는 "일제강점기 시기는 서화가 가장 활발히 그려졌던 시기"라고 설명하면서 "안중식의 서화가 다가올 근대의 봄 혹은 새로운 시대를 깨운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며 기회 의도를 밝혔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화조도>
자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를 담은 푸른 빛, 청년들을 밝히다

EBS 허성호·이승주 PD

만물이 푸른 봄철, '청춘'은 부수신 청춘의 중심에는 단연 청년이 있었다. 물론, 언제나 '청년'은 진취를 대변하기 마련이지만, 100년 전, 우리의 청년들은 만물이 푸른 봄철 그 어디 즈음에 머물렀을까?

여기, 이같은 물음과 함께 청년 독립 운동가를 추적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EBS의 허성호(67)·이승주(27) PD다. 그들을 만난 것은 어느 푸르른 봄날, 해가 진 어둑어둑한 밤이었다. 광주에서 촬영을 마치고마자 무리나게 상경한 그들의 모습은 매우 피로해 보였지만 웃음과 활기는 그들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역사’, ‘여행’, 그리고 ‘청년’ 덕후
EBS에 입사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 허성호 PD는 그야말로 역사·여행 덕후다. 실제로 그는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역사·여행 분야 위주로 구성한다. 업무를 하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는 프로그램을 맡을 때마다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역사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음을 여행 프로그램에서는 의외의 시간이 있었던 의외의 장소에서 한치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이밖에, 그는 학생시절부터 학내 때를릴과 같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학생시절 반장을 할 때면 친구들 간 소외감을 없애는 것에 주력했어요. 소외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해는 반장 일을 못했구나, 자책하기도 했죠.”

대학 진학 후에도 그의 관심은 한결 같았다. 그의 PD로서 첫 작품이 EBS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다크프라이밍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는 청소년과 같은 맥락으로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가 현재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역사의

빛 창년〉 다크프라이밍을 제작하게 된 연유이기도 하다.

작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인간 비터민’

이승주 PD는 본인의 의지와, 선배 허성호 PD의 강력 추천에 힘입어 이번 〈역사의 빛 창년〉 다크프라이밍 제작을 함께하게 됐다. 그 녀는 아직 입사 4년차인 ‘새내기’ PD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만큼은 뚜렷하다.

“저는 TV를 보면서 위안을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는 PD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PD로서의 목표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인생 프로그램이 제가 만든 작품이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녀는 누군가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허 PD가 이 PD를 이번 다크프라이밍에 추천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에게 ‘힘난한 강행군을 웃으며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힘과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 비터민. 그녀를 대변해줄 가장 적합한 단어였다.

같은 듯 다른 두 명의 ‘시너지’
허성호 PD와 이승주 PD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들 모두 대학 전공이 PD라는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허 PD는 행정학과 신학이 이 PD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한편, 허 PD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소위 ‘역덕(역사 덕후)이었던 반면, 이 PD는 역 알못(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차이를 꼽았다. 이렇다 하면 역덕과 역알못이 어떻게 문치게 됐을까?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역사를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역사적 내용을 이야기로 풀 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책임자가 바로 이승주 PD였고요.”

허 PD는 자신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하면, 이 PD가 그것을 오늘날 생각해볼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너지는 전공·관심사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음에도 최고의 호흡을 연출하게 했다.

역사의 진정한 빛은 ‘청년’

“독립운동의 중요한 순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곳에는 늘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다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 때 먼저 독립선언서를 읽은 것도 20세를 전후한 청년이었고, 3·1운동 이후 일어난 대구포 만세운동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국으로 불을 붙였어요.”

허 PD는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거의 모든 독립운동에서 무뚝뚝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번 다크프라이밍은 무엇이 당시의 청년들을 움직이게 했는지, 우리는 지금의 청년들을 잘 키우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제작 중이라고 전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많고 많은 세대 중 왜 청년이었을까? 왜 청년은 독립운동사의 의 모는 지점에 머물렀을까?

이같은 질문에 이 PD는 “청년은 청년만 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보기에 무표정이라 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열정으로 터트리 는 지점’이 있었어요. 청년에게는 패배의식이 없 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약간의 무모함 이 독립운동이라는 일제강점기라는 강력한 벽 앞에서 폭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라고 답 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시청자에게 청년을 귀 하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젊은 사람이 항상 시화를 선도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시화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동 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의 힘이 필요해요. 따라서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을 귀하게 여 겨야 청년들도 기성세대를 신뢰하고 따르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죠.”

‘청년’이 ‘청년’에게 전하는 말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전하는 말을 부탁했 다. 허 PD는 “제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 합니다. 그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길을 찾 아 그 길로 열심히 가면 분명 원하는 삶이 있 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생이라는 먼 길 가는 길이 쉽지 않게 축지법을 쓰자면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예요. 좋은 사람들 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라 고 덧붙였다.

이 PD는 본인의 개인적 아쉬움을 털어 냈다.

“저는 꿈이 ‘직업’이었던 게 아쉬워요. PD 가 꿈이었는데 막상 PD가 되고 나니 다시 인 생의 고만이 시작되더라고요. 꿈을 이루면 인 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다가, 제 꿈은 PD가 아니 고 PD가 돼서 시청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청년들이 동 시형의 꿈을 갖길 바라요. 그러면 취업 실패도, 시험에 낙방하는 것도 인생에서 잠시 들르는 정류장일 뿐이예요. 그런 바로 실패 한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형 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 생을 마감할 때 마침내 그것을 이뤘다면, 그걸로 된 것이라 생각해요.”

작가 이노를 프랭스는 ‘내가 만약 신이라 면, 나는 청춘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것이라 는 말을 남겼다. 그만큼 청춘이란 인생에 가 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기라는 의미다. 단신 은 당시의 청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당 신의 청춘을, 청년기를 귀하게 여기며 잘 살 아가고 있는가

정성이 기자
sunab0913@hansung.ac.kr



허성호 PD



이승주 PD



사진 제공 : 허성호 PD



사진 제공 : 허성호 PD



이승주 PD

이동통신의 새 지평, 5G를 훑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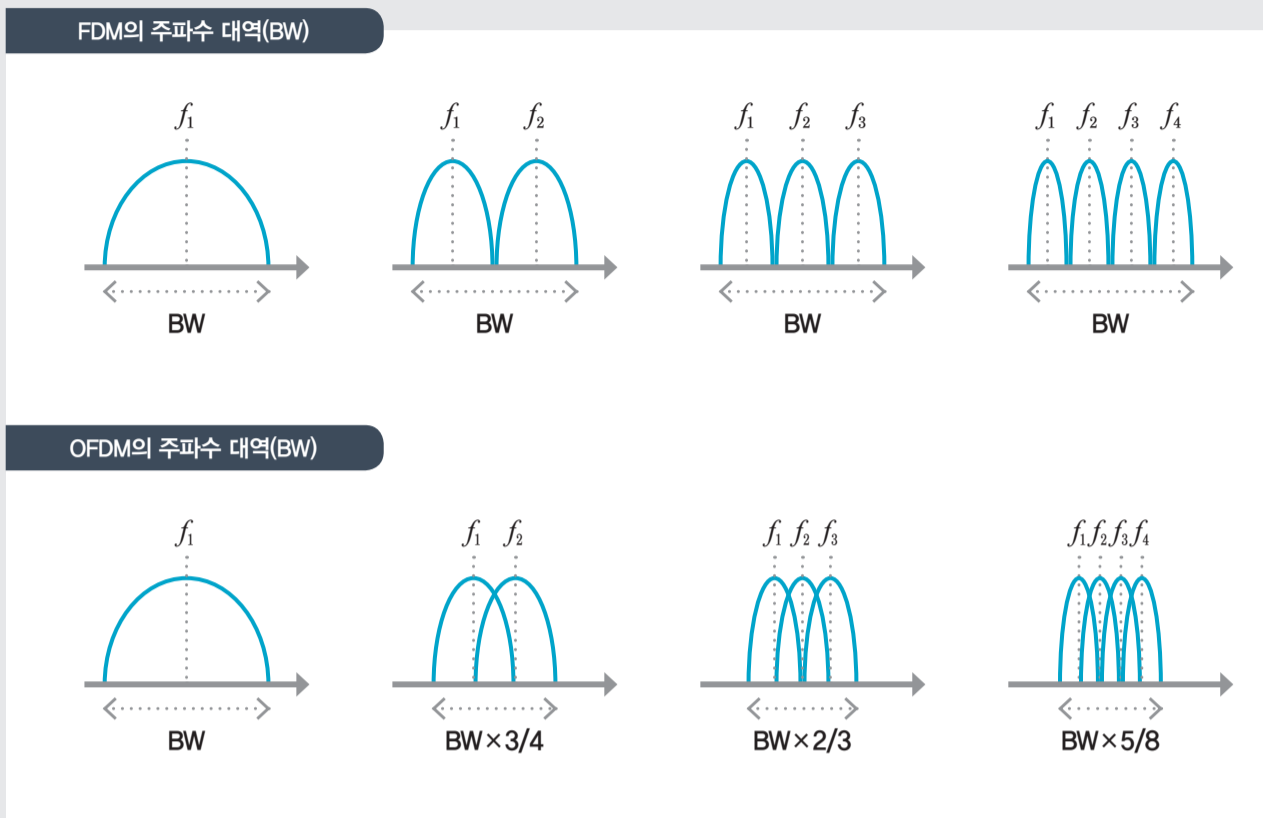
MIMO와 OFDM을 혼용...서비스 품질 저하 등 해결과제 여전해

지난 4월 3일, KT·SKT·LG유플러스로 이루어진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5G 서비스를 개통한 지 하루 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도 5G 서비스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입을 모아 '5G는 4세대 이동통신(이하 4G)에 비해 속도는 최대 20배, 용량은 최대 100배, 지연시간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5G 가입자 수도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5G가 도입된 지 채 한 달조차 되지 않은 4월 29일, 5G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26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돼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4G? 5G? 5G가 뭔데?

5G의 정식명칭은 'IMT-2020'이며, 이동통신 관련 최상위 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세대 통신 규약이다. 5G는 현재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5G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MIMO와 OFDM이라는 기술이 활용된다. 먼저, MIMO(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란 다중 입출력 안테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 한 번에 사용자 다수에게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전송용량과 전송속도를 향상시킨 기술이다. MIMO를 사용하면 각 안테나에 독립적인 신호를 할당해 전파 간의 간섭을 줄이고 전송 용량을 늘릴 수 있기에 이동통신업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송신과 수신에 존재하는 안테나 개수에 비례해 용량이 정 비례해서 증가하는 MIMO는 5G의 핵심 기술로 주목된다.

한편,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은 기존의 FDM(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발전시킨 것으로, 수많은 부반송파에 디지털 정보를 나누어 전송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부반송파란 데이터 정보를 담은 전파를 가리키는데, 이 전파는 자유롭게 변조가 가능해 디지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OFDM과 FDM은 이런 부반송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FDM은 각각의 부반송파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OFDM은 부반송파를 서로 중첩할 수 있기 때문에 FDM보다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OFDM의 경우, 부반송파를 겹칠 수 있기에 동일한 대역폭(전파를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압축하여 송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FDM은 부반송파를 겹칠 수 없어, 같은 대역폭을 사용하더라도 OFDM보다 적은 데이터를 송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OFDM은 전송되는 데이터 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통신업계는 보다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MIMO와 OFDM을 혼용해 쓰고 있다. 우리학교 오종택(전자정보공학과) 교수는 "기존 기술이 더 이상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용한 기술이 OFDM"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선된 데이터 재전송 기술 등이 도입·적용되어 획기적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름값' 못하는 5G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속도 저하와 같은 통신 품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개통된 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끊김 현상, 서비스 미제공 지역 등 '5G 서비스 품질 불만'이 117건(89.3%)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5G 주파수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G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4G에 비해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고 주파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굴절이나 반사가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건물과 같은 장애물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5G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서 5G는 4G보다 기지국을 더 많이, 더 조밀하게 설치해야만 한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기지국 분포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가 전국에 구축한 기지국 수 5만 512국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구축한 기지국 수는 3만 3670국으로 전체 기지국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수도권 지역의 5G 통신품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윤종택(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주요 지역으로 기지국을 늘려 인구의 93% 정도가 5G 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현재의 구축 속도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5G의 해결과제에 대해 오 교수는 "세계 최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안정된 시스템 운용과 저렴한 통신 비용 같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홍길동전』의 저자는 허균이 아니다?

조선 3대 의적 중 하나이며 서자출신의 비애를 품었던 홍길동.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담긴 『홍길동전』은 흔히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이상 우리가 아는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 그런 것일까?

처음 『홍길동전』의 작자를 허균으로 지명한 이는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문학 담당 교수였던 다가하기 도루였다. 그는 조선시대 저명한 문장가 태강 이식의 『택당집(澤堂集)』 중 "허균은 또 『홍길동전』을 지어 수효전에 비겼다(筠又作洪吉同傳以擬水滸)"라는 구절을 근거로 『홍길동전』을 써낸 이가 허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허균의 『홍길동전』이 한문소설이라고 주장했지만,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홍길동전』을 한글소설로 명명하면서 허균은 한글로 『홍길동전』을 집필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동욱(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를 "생전 허균이 지은 다섯 편의 소설은 모두 한문이다. 『홍길동전』만 한글로 지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 중기 한 문인이 남긴 문집에서 기존 판본보다 앞선 『홍길동전』이 발견되면서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 아니라는 것은 더 분명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노혁전'은 홍길동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로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지소(芝所) 황일호(1588~1641)가 한문으로 남긴 『지소선생문집(芝所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지소는 노혁전 앞부분에 "노혁의 본래 성(姓)은 홍(洪)이고, 그 이름은 길동(吉同)이니, 실로 우리나라 망족(望族)이다. 불기(不羈)의 재주를 품었으며, 박혁(博奕)을 잘 하고, 글에 능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이야기 속 '노혁'이 '홍길동'임을 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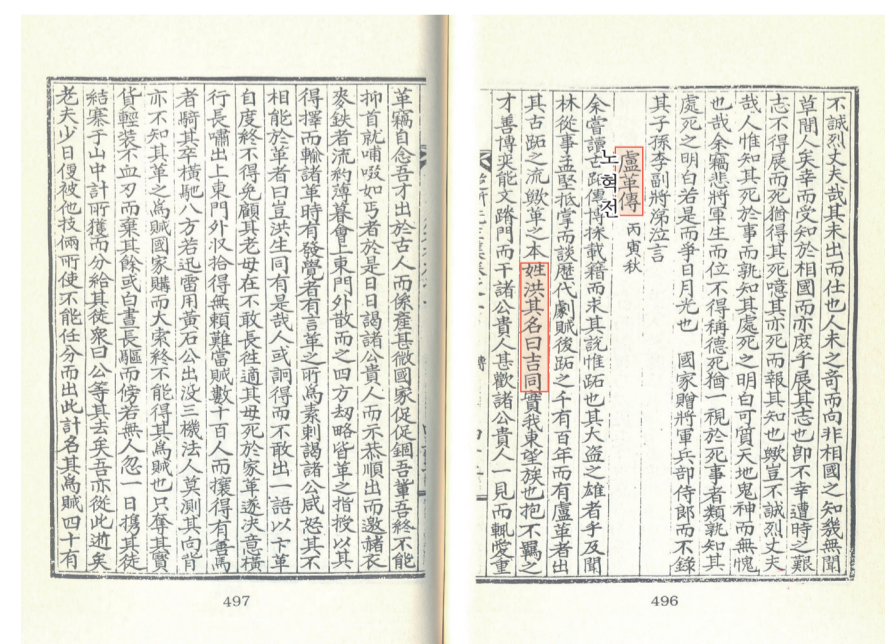
『노혁전』 속 홍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주가 많았지만, 신분이 미천했던 도둑의 우두머리였다. 40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도적으로 활동하던 노혁은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도적단을 해산한다. 그 후 노혁은 양가의 여자와 결혼해 많은 자녀를 낳아 천수를 누리다 죽는다. 지소는 "도적의 죄를 내다가 늘그막에 깨달아 본연의 선(善)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고리를

굴리는 것 같으니, 이 역시 호걸의 일"이라며 자신이 느낀 바가 있어 이야기를 남긴다는 말로 『노혁전』을 끝맺었다.

『노혁전』의 발견자인 이윤석(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교수는 논문에서 "오랫동안 『홍길동전』의 작자가 1618년에 죽은 허균이라고 잘못 알려졌으므로, 『홍길동전』에 관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이 작품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며 "조선시대 한글소설은 서민들이 만들고, 서민들이 소비하는 철저한 서민의 문예물이었으므로 한글소설의 작자와 독자에 양반 지식인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즉,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며, 따라서 이를 허균의 사상과 결부시키는 것 또한 『홍길동전』에 대한 오독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홍길동전』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소설가가 1800년 무렵에 한글로 집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홍길동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권혁래(용인



▲『지소선생문집(芝所先生文集)』 속 『노혁전(盧革傳)』. 서두에는 "성은 홍(洪)이고, 그 이름은 길동(吉同)"이라는 의미의 문장이 쓰여 있다. 사진 제공: 이윤석 전 교수

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는 "신분차별에 저항한 '홍길동'의 활약을 소설화한 이 작품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소설이라는 점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삼 학 송 ·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11일), 세계 가정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가정위탁의 날(22일). 5월에는 유독 다른 달보다 '어떤 날'이 많다. 특히, 앞서 제시한 기념일들처럼 가정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일컫곤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 관계를 되새겨보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달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기념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에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평소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다. 또, 가족끼리 놀이동산에 소풍을 가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 반대로 어버이날에는 자녀가 부모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로 카네이션과 함께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드린다. 그것이 우리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떠올리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물론, 가정의 달을 보내는 방식은 가족마다 모두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만큼은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은 변함없다. 이처럼 가족은 그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일종의 버팀목이자 안식처가 되어 준다. 그러나 과연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5월을 보내고 있을까?

최근 가정의 달이 무색할 정도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친족 간 성폭행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의붓아버지가 중학생인 딸을 성폭행 후 살인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친모가 살해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더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여중생은 평소 친부에게마저 학대를 받아왔다고 한다.

학대와 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 불화로 인해 불행한 5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존재한다. 지난 5월 6일에는 서울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35세 여성이 '자네 시끄럽게 군다며 부모와 다투고 나서 스스로 몸에 기름을 부어 분신했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을 꺾지만 이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다. 딸을 말리던 어머니 역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버지도 팔과 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는 5월의 행복을 누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 안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살, 4살배기 어린이까지 부모와 함께 숨져 있었다. 발견 당시 부부가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여 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주물공장에 다니던 가정은 7,000만 원에 달하는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듯 요즘 우리 사회는 가족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족 해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족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다. 가족이 건전하고 건강해야만 올바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도, 지자체도, 정부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은 5월,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강예림 편집국장



상상관 로비에 자리한 엘리베이터는 3대. 강의 시간마다 로비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가득 붐빈다. 하지만 강의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층이동' 엘리베이터는 3대 중 2대뿐이다. 이 때문에 2대의 엘리베이터만으로는 학생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진효정(인문 2) 학생은 "아침 9시 전후로 상상관에서 곧장 엘리베이터를 탄 경우가 손에 꼽는다. 3대 모두 전층운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측에서는 사람이 붐빌 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수민 기자

기자수첩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가족은 다른 방향의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 대신 '마음의 준비'를 권하는 동물병원의 의사의 진단 끝에 10년을 같이 보낸 반려묘 '호두'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슬픈 마음으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해 알아보던 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나의 '가족'인 호두가 죽게 되면, 호두는 법적으로 '쓰레기'가 되고 우리는 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준비할 수 없는 준비

한다는 것. 차마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화장하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반려동물 화장터가 많지 않을뿐더러, 모두 공공시설이 아닌 사설 업체였다. 심지어 불확실한 업체에서는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조언에 호두를 화장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인'은 약 1481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의 죽음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하는 업체는 단 3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백, 수천여 개의 반려동물 장례 업체와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있는 미국·프랑스 등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이다.

여전히 '준비'하려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다운 준비를 할 수 없는 현실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없었다. '천만 반려인의 시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는 호두와의 준비할 수 없는 이별을 바라보고 있다.

이가연 기자

#낙산세컷_잡아라_정기_삭제법

정명아 기자

< 전자출결 앱 실효성, 당신의 생각은? >

한성대신문 신문사

<편집자주>
우리학교는 전자출결 앱을 사용해 출결을 처리하고 있다. 전자출결 앱은 번거로운 호명 없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앱의 잦은 오류와 출석체크 후 도주하는 이른바 '출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전자출결 앱의 실효성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서정(부동산 3) 학생
작년까지는 전자출결 앱을 잘 사용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앱 오류가 지나치게 잦아져 담당 부서를 찾아갔더니 기를 번거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구두로 출석을 확인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서운(회화 1) 학생
처음 전자출결을 경험했을 당시에는 앱 사용이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앱의 잦은 오류 때문에 다시 교수님께 출석 정정을 부탁드려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 전자출결 앱은 클릭 한 번이면 출석이 결정돼 '출퇴'의 가능성이 있고, 몇 초 차이로 출결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전자 4) 학생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출결 앱을 편리하게 사용 중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시스템 안정화도 잘 되어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형(무역 3) 학생
학생들이 강의실 외부에서도 출석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악용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수업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교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스템 오류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간다면 더 나은 출결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현학(컴공 2) 학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기에는 앱이 가진 문제점이 너무나 사소한 결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현대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학교 측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재원을 소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재원을 투자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은 전자출결 앱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비추고 계신군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우분도 계신가요?

점시 타고 떠나는 구석구석 세계 문화 여행

‘잇(eat)’하는 것에서 ‘잇는’ 것으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서구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증기하고 있다. 비서구권 지역으로의 여행이 늘어난 것도 이를 증명하는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음식’에 대한 부분이다. 외국풍 음식이라고 해야 음식과 종식, 양식 뿐이던 이전과 달리,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이색 음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또 같은 중식, 일식을 떠타도 그동안 흔히 접하던 ‘딤침’, ‘스시’에서 그치지 않고 ‘마리탕’이나 ‘규기츠’ 등 현지에서 자주 먹는 음식을 선호하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외국 음식이 유행하게 되면서, 한 국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에스닉 푸드(Ethnic Food)라고 부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래 ‘에스닉 푸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음식’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적인 타 민족의 음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에스닉 푸드 열풍이 일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사회 현상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소위 ‘막방’, ‘북방’의 인기로 음식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 여행·유학 등으로 해외 경험자가 늘어나 외국 음식과 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

한 것, 국내 체류 외국인 이 전통 식단을 차리게나 요리사로 활동하면서 에스닉 푸드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방식의 문화 교류가 에스닉 푸드의 유행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스닉 푸드의 유행은 문화 교류의 결과물이지만, 외국 문화가 낯선 이에게는 역으로 에스닉 푸드가 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리된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료의 선별과 손질 방식, 조리 과정과 상차림, 먹는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음식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닉 푸드를 통한 음식문화의 전파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전명호(연세대학교) 교수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배서권 출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 국 사회는 단일민족에 대한 담론이 매우 강하고, 비서구권에 호의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어 이를 선택 받아 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에 담긴 특정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이란

이란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음식문화가 특징이다. 이슬람을 믿는 이들이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만큼, 식재료 선택에도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 음식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를 재료로 삼지 않는 대신, 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믿는 양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이란에서는 음식을 ‘잇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여겨 나눠 먹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면 식사를 극진히 대접한다. 이란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또, 이란 사람들은 밥과 난을 주식으로 한다. 이란의 밥은 찰진 한국의 쌀과 달리 식감이 푸석푸석한 ‘인남미’로 만든다. 부식으로는 중동 지역의 전통 음식인 ‘케밥’을 즐겨먹는다. 케밥에는 철펠(다진 양고기)과 다진 채소를 피자에 끼워 구운 요리, 주제 케밥(달고기를 피자에 끼워 구운 요리), 마히 케밥(생선을 피자에 끼워 구운 요리) 등이 있다. 그중 가장 즐겨먹는 것은 철펠 케밥의 일종인 ‘쿠버데’다. 쿠버데는 다진 양고기와 양파 등을 문쳐 만든 것으로 한국의 떡갈비와 비슷한 맛이 난다.



▲주제 케밥

몽골

몽골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해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데다 강수량이 적어 한랭건조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풀과 같은 자연환경 요소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유목 생활을 해왔다.

이같은 환경으로 인해 몽골인들은 농사를 지어 곡물을 섭취하기보다는 양, 소, 염소 등 동물의 고기와 젖을 주식으로 했다. 이로 말미암아 육류와 우유로 만든 음식이 많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허트헝(양고기)과 아체를 달구진 돌과 함께 냄비에 넣어 끓여 요리한 음식’이다. 이를 속으로 한 몽골식 튀김(민두), 으름(우유로 만든 버터와 유사한 음식)이다. 소나 양고기를 주 식재료로 사용하긴 하지만, 밀가루에 고기를 곁들여 요리한 음식도 있다. 이 경우 소나 양고기를 밀가루 면을 풀어 요리하거나 채소와 함께 기름에 볶아 먹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대표적인 것이 ‘고릴타이썰르(몽골식 소고기 국수)와 ‘초이원(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은 몽골식 볶음면’이다.



▲초이원



베트남

베트남은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지역마다 기후 차이가 크고, 긴 해안선과 넓은 곡창지대, 고산지대가 발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베트남 음식은 채소, 열대과일, 해산물 등 풍성한 식재료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아메추와 채소를 활용한 음식이 많다.

또, 베트남 음식은 쌀을 주재료로 한다. 이 역시 베트남의 지리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바로 베트남을 가로지르는 하천 ‘홍하’와 ‘메콩강’이 비옥한 토양을 운반해 형성된 ‘홍하 델타’와 ‘메콩 델타’ 지역 때문이다. 이 두 지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어마어마한 쌀 생산량을 통해 쌀을 베트남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쌀국수’ 외에도, ‘짜찌라이스페이’이며 각종 고기와 채소를 얹어 튀긴 음식, ‘부짜(채소와 돼지고기, 쌀국수를 느역만 소스에 찍어먹는 음식)’ 등의 요리는 베트남 음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세 음식 모두 ‘쌀’을 주재료로 하고 있으며,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짜를 적어 먹는 소스인 ‘느역맘’은 생선 액젓으로, 아메추를 활용한 베트남의 대표적 젓갈이다.



▲분짜

중국

중국 요리는 영토가 넓어 식재료가 다양하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풍토와 기후로 지역 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대표되는 음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의 요리도 지방에 따라 조리 형태나 맛이 다르다.

물론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을 꼽자면 중국 4대 요리인 북경, 광둥, 사천, 상해 지역의 요리가 있다. 이 중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 ‘사천요리’다.

사천요리의 근거지인 사천성은 지역적으로 내륙 분지에 위치해 다우와 추위가 심하다. 이 때문에 식물이 번질수록 우려가 있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고, 소금절임과 건조육 음식이 많이 발달했다. 사천요리에서 사용하는 향신료는 대부분 마늘, 파, 매운고추, 생강 등 향이 강한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는 ‘두반장’인데, 이는 고추와 잠두라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마린장, 마리랑국, 후구의 핵심 재료로 사용된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천요리는 ‘마리랑국(두반장에 고기, 채소 등의 재료를 볶아 만든 음식)’, ‘후귀(얇게 썬 고기, 해산물, 채소를 끓는 육수에 살짝 익혀 소스에 찍어 먹는 중국식 사브사브)’ 등이 있다.



▲후귀